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정답 및 해설

01. ④ 02. ① 03. ④ 04. ① 05. ① 06. ④ 07. ③ 08. ③ 09. ⑤ 10. ②  
 11. ④ 12. ② 13. ② 14. ① 15. ② 16. ③ 17. ③ 18. ① 19. ⑤ 20. ⑤

1. 밀이 강조한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강연자는 질적 공리주의 사상을 제시한 밀이다. 밀은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단순한 육체적 쾌락보다는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고상하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밀은 유용성을 중시한다.
- ② 밀은 전통적 관행과 다수의 의사에 대한 반성적 검토를 중시한다.
- ③ 밀은 의무론적 윤리 사상가가 아니다.
- ⑤ 밀은 쾌락들 간에 가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2. 증산교, 동학, 원불교 사상의 공통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가)는 증산교, (나)는 동학, (다)는 원불교 사상이다. 증산교는 원한을 풀고 은혜를 갚을 것을 강조하였다. 동학은 모든 사람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불교는 한국형 생활 불교를 표방하였다. 세 사상은 모두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ㄱ), 봉건적 신분질서에서 벗어나 만민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ㄴ). **정답 ①**

[오답피하기]

- ㄷ. 원불교의 입장이다.
- ㄹ. 세 사상은 모두 이상적인 사회의 실현을 추구하였다.

3. 장자의 기본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장자의 주장이다. 장자는 소요유(逍遙遊)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 좌망(坐忘)과 심재(心齋)를 제시하였다. 좌망은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분별적 관념을 모두 잊어버리는 것이고, 심재는 마음을 비워 깨끗이 하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불교 사상가들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② 유교 사상가들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③ 장자는 의를 쌓거나[集義(집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를 것을 강조하지 않았다.
- ⑤ 장자는 본성의 변화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유교의 인과 예를 비판하였다.

4. 주희의 수양론 이해

**정답 해설** :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주희이다. 주희는 성이 곧 이치[性卽理(성즉리)]

이므로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해야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주희는 지와 행은 병진한다[知行並進]는 것을 강조하였다.
- ③ 주희는 기질지성이 아니라 본연지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부를 강조하였다.
- ④ 자주지권(自主之權)의 발휘를 강조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 ⑤ 주희는 정치와 사회 문제의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 5. 스피노자와 아우렐리우스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근대 이성주의 사상가인 스피노자이고, 을은 고대 스토아학파의 사상가인 아우렐리우스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이 곧 자연이므로 자연의 무한성과 영원성은 신의 속성과 동일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지 않다.
- ③ 아우렐리우스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을 통해 신과 자연을 인식할 수 있다.
- ④ 아우렐리우스는 은둔자의 삶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삶을 강조하였다.
- ⑤ 스피노자와 아우렐리우스는 모두 자연 질서가 필연적이라고 보았다.

### 6. 맹자와 순자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맹자이고, 을은 순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성인이 제정한 예(禮)를 통해 교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순자가 강조한 예는 인간의 욕망을 조절하는 기준이고 욕망 충족의 한계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맹자가 강조한 인은 친소의 구별을 전제로 한 사랑이다.
- ② 맹자에 따르면 측은지심을 비롯한 사단(四端)은 선천적인 것이다.
- ③ 순자가 강조한 예는 타고난 악한 성품을 교화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 ⑤ 맹자는 인과 의로 다스릴 것과 백성의 성을 함양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비해 순자는 예로써 다스리고 백성의 성을 교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 7.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가)의 갑은 플라톤이고,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성이 욕망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갖출 수 있는 절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덕이다(ㄷ).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행위와 감정에 중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인 심술과 그 자체로 나쁜 행동인 절도 등에는 중용이 없다(ㄹ).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8. 이이와 이황의 공통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이이이고, 을은 이황이다. 이들은 모두 경(敬)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整齊嚴肅(정제엄숙)]은 경을 실천하는 한 가지 자세이다(ㄴ). 그리고 이들에 따르면 경은 물욕(物慾)이 본심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양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다(ㄷ). **정답 ③**

### [오답피하기]

- ㄱ. 이이와 이황에 따르면 마음을 집중하고[主一無適(주일무적)] 늘 깨어 있는 정신을 유지하는 것[常惺惺(상성성)]은 성이 아니라 경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자세들이다.  
ㄴ. 이이와 이황에 따르면 성(誠)과 경은 양지(良知)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특히 이이에 따르면 성은 하늘의 진실한 이(理)이자 마음의 본체이고, 경은 성에 이르기 위한 노력의 핵심이다.

## 9. 정약용이 이이와 이황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성리학의 성즉리설(性卽理說)을 부정하고 성기호설(性嗜好說)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성(人性)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성이다. **정답 ⑤**

### [오답피하기]

- ① 정약용에 따르면 사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실천할 때 형성된다.  
② 정약용에 따르면 기호에는 영지(靈知)의 기호와 형구(形軀)의 기호가 있으며, 인간은 두 가지를 모두 지니고 있다.  
③ 정약용에 따르면 성인 기호는 선천적인 것이다.  
④ 정약용에 따르면 성은 천리(天理)가 아니라 기호이다.

## 10. 원효와 의천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원효이고, 을은 의천이다. 원효는 일심(一心) 사상에 기반을 둔 화쟁(和諍) 사상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갈등하거나 대립하는 여러 종파의 이론들을 일심에 의거해서 회통시켜야 한다. **정답 ②**

### [오답피하기]

- ① 원효는 염불 수행만 잘 해도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다.  
③ 간화선 수행을 강조한 사상가는 지눌이다.  
④ 점수 없는 돈오를 강조한 사상가는 혜능이다.  
⑤ 의천은 경전 연구[敎(教)]를 중심으로 선(禪) 수행을 병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 11. 벤담과 칸트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벤담이고, 을은 칸트이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기본 원리로 제시하였다. 칸트는 정언 명령을 따르는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보편화 가능한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벤담에 따르면 고통과 쾌락은 인간의 행위를 좌우하는 두 군주이다.
- ② 벤담에 따르면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판단된다.
- ③ 칸트에 따르면 의무에 맞는다고 해서 모두 도덕적인 행위인 것은 아니다. '의무에 맞을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⑤ 칸트에 따르면 자신의 행복만을 증진하려는 것은 결코 의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려는 자연적 경향성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

**12. 키르케고르와 하이데거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키르케고르이고, 을은 하이데거이다.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인간은 심미적 실존 단계에서 윤리적 실존 단계를 거쳐 종교적 실존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ㄱ). 하이데거는 불안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았다(ㄷ).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ㄴ. 키르케고르는 주체성과 주관적 진리가 있어야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 ㄹ. 키르케고르는 신의 존재를 믿는 실존주의 사상가이다.

**13. 로크와 루소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로크이고, 을은 루소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자연 상태의 인간은 누구나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삶을 누리지만 사회 상태로 옮겨 가면서 불평등과 예속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로크는 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립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 ③ 루소는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④ 루소는 사유 재산 제도를 인간 불평등의 원인으로 보았다.
- ⑤ 로크는 묵시적 동의나 명시적 동의를 정치적 복종의 정당화 근거로 보았다.

**14. 혜능과 왕수인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가)의 갑은 혜능이고, 을은 왕수인이다. 혜능은 마음에 불성(佛性)이 있다고 보고 돈오돈수(頓悟頓修)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오온의 일시적인 결합체인 '나'에 집착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ㄱ). 왕수인은 내 마음에 본래부터 있는 양지(良知)를 사물에서 온전히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혜능과 왕수인은 모두 마음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이상적 인간됨을 발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ㄷ). **정답 ①**

**[오답피하기]**

- ㄴ. 혜능은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깨달을 것을 강조하였다. 왕수인은 이론적 학습 과정이 없어도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

ㄹ. 왕수인은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心外無理(심외무리)]고 보았다.

### 15.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아우구스티누스이고,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신앙은 이성보다 우위에 있고 이성의 기능 수행에 기여할 수 있다.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였다. **정답 ②**

#### [오답피하기]

- ①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악은 실체가 아니라 자유 의지의 남용에서 비롯된 선의 결여일 뿐이다. 이는 어둠이 실체가 아니라 빛의 결핍인 것과 같다.
- ③ 아퀴나스에 따르면 최상의 행복은 반드시 종교적 덕이 있어야 실현된다.
- ④ 아퀴나스에 따르면 신의 존재는 이성을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 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은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지복(至福)에 이를 수 있다.

### 16. 나딩스와 매킨타이어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나딩스이고, 을은 매킨타이어이다. 나딩스는 배려를 자연적 배려와 윤리적 배려로 구분하였다. 매킨타이어는 도덕은 공동체의 전통과 삶의 양식, 관습 등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도덕 판단 과정에서 인간의 품성과 관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③**

#### [오답피하기]

- ① 나딩스에 따르면 배려는 낯선 타인과 동식물과 지구 환경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 ② 나딩스에 따르면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에 근거한다.
- ④ 매킨타이어에 따르면 개인이 추구해야 할 목적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역사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 ⑤ 나딩스와 매킨타이어에 따르면 도덕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다.

### 17. 흄과 홉스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흄이고, 을은 홉스이다. 흄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도덕성의 기초로 보았다. 홉스는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세우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이기적인 개인들이 합리적 합의로 구성된 권력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 [오답피하기]

- ① 흄에 따르면 인과 관계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알게 된 것일 뿐이다.
- ② 흄에 따르면 이성은 의지를 지도함에 있어서 감정에 대립할 수 없다.
- ④ 홉스에 따르면 합의의 구속력은 국가가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
- ⑤ 흄과 홉스에 따르면 도덕은 초월적 존재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정념에서 발생하

---

거나 인간들의 계약에 의해 생겨난 현실적인 규범이다.

### 18. 노직과 롤스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노직이고, 을은 롤스이다. 노직에 따르면 소유의 정당성을 판단하려면 역사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즉 취득의 과정이나 이전의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정답 ①**

#### [오답피하기]

- ② 노직은 천부적 재능으로 취득한 이익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롤스에 따르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정의의 원칙을 통해 보장될 수 있다.
- ④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한다.
- ⑤ 노직과 롤스에 따르면 공정한 절차에 따른 분배는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 19. 고르기아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고르기아스이고, 을은 소크라테스이며, 병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고르기아스가 회의주의적 입장을 피력한 데 비해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를 비판하였으며, 지식을 모든 덕과 행복의 원천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답 ⑤**

#### [오답피하기]

- ① 고르기아스는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모두에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소크라테스는 고르기아스에게 절대적인 선악 판단 기준이 존재함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지주의 윤리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에게 의지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소크라테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참된 앎만으로도 덕을 실천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 20.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케인스이고, 을은 하이에크이다. 케인스는 불황의 극복과 실업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하이에크는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경제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두 사상가는 모두 개인의 자유와 사유 재산 및 시장 경제를 인정한다. **정답 ⑤**

#### [오답피하기]

- ① 케인스는 시장의 원리만으로는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② 케인스는 국가 기능의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 ③ 하이에크는 기업의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조하였다.
- ④ 하이에크는 공유제와 계획 경제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였다.